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경험*

김 영 선¹⁾ 이 재 립²⁾ 최 정 아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도담마인드케어센터

이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15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1학기 개학이 지연되고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공교육이 지속된 2020년 10월로, 코로나19 시기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탐색하기에 적절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코로나19와 자녀돌봄’, ‘코로나19와 자녀교육’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와 자녀돌봄’은 ‘24시간 가정돌봄’, ‘일상의 재구성’, ‘식사와 건강’이라는 대주제가, ‘코로나19와 자녀교육’은 ‘처음 하는 원격수업’, ‘원격수업의 성공과 실패’, ‘자녀교육의 새 방향’이라는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 등교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가정 내 돌봄과 교육의 부담이 컸던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한 어머니의 생생한 자녀양육 체험을 기술하고 어려움과 통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코로나19, 어머니역할, 온라인학습, 학부모 교육참여, 초등학생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20년 수시과제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의 경험: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를 중심으로」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재립)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해당 과제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S1A5B8A02072579).

이 논문은 2021년 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내용을 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3) 교신저자 : 신지용정신건강의학과 부설 도담마인드케어센터 심리상담사 (E-mail: lisachoi1@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밖 학습(학교, 학원 등), 일상적 돌봄(급식,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친구 맺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다(Patrick et al., 2020).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부모의 역할도 다양해졌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와중에 자녀의 신체와 건강을 관리하고(Xiang, Zhang, & Kuwahara, 2020)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일상적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Ghosh, Dubey, Chatterjee, & Dubey, 2020). 특히 주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어머니의 역할과 부담이 커졌다.

코로나19 시기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발달상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TV, 디지털 기기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Prime, Wade, & Browne, 2020; Wang, Zhang, Zhao, Zhang, & Jiang, 2020).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가정에서의

양육 및 교육 환경에 따라 자녀의 학습격차가 증가할 수도 있다(Fegert, Vitiello, Plener, & Clemens, 2020). 즉, 코로나19 시기에는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그 이전보다 더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와 학원 등이 상당 부분 수행하던 돌봄 기능이 제한되고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신체적 부담과 함께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였다(문설휘, 오은미, 유선영, 2021; 석민아, 문인경, 이병호, 2021).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는 자녀의 원격수업을 관리하는 동시에 직장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과 양육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Fegert et al., 2020). 특히 양육자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부모의 역할과 교육참여가 증가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김영미, 2020).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령기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의 실제 양육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지원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모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경험을 탐색한 최근 연구의 주된 관심은 돌봄과 교육으로 나뉘는데, 이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부터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돌봄 관련 이슈가, 초등학교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돌봄과 교육이 모두 중요한 연구주제(김경애 등, 2020; 문설휘 등, 2021, 이보람, 이

강이, 2021,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맥락에서는 코로나 19 시기 돌봄공백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 조부모 등의 돌봄참여, 주양육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녀교육지원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을 연구하였다(석민아 등, 2021; 조숙인, 2021; 최윤경, 2020). 학령기 가족의 맥락에서는 돌봄공백의 어려움 이외에도, 원격수업에 대한 양육자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생의 특성이 언급되었다(김경애 등, 2020). 초등학교생은 중고등학교에 비해 코로나19 이전의 온라인 학습경험이 현저히 적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시기 학령기 부모의 경험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시기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모의 경험과 자녀가 고학년에 진입한 부모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발달적으로는 2차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사춘기에 진입하는 시기이며, 교과과정 측면에서는 요구되는 학습량이 많아지고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는 시기이다(신의진, 2011). 부모로서는 코로나19 이전에 자녀가 초등학교 1-3학년을 거쳤기 때문에, 3년간의 학부모역할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전후의 학부모역할을 비교하고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역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녀의 발달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코로나19 시기 양육경험을 분석한 연구(김유식, 정병철, 2020; 문설화 등,

2021)가 있으나, 자녀의 학년에 따라 부모의 돌봄과 교육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외에는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원격수업 경험을 분석한 연구(박완성, 박종환, 임영미, 2021)가 있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관점과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기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코로나19 시기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생과 관련한 연구는 조사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학년도 1학기는 휴업명령, 단계적 온라인 개학, 순차적 등교 개학으로 학사운영에 변화가 극심하였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처음 접하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학기가 운영되었다. 2학기는 1학기에 경험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격수업은 사전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이 Zoom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2차 유행,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2학기에도 학사일정과 원격수업에 변동이 잦았다. 어느 학기에 조사되었는지에 따라 원격수업방식과 등교수업 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코로나19 시기 자녀

표 1.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법(서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학기	구분	시기	대상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휴업 명령	1차 (3.2~3.6)	전 학교급
				2차 (3.9~3.20)	
				3차 (3.23~4.3)	
				4차 (4.6~4.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강도 수준 (3.22~4.19)	1학기	단계적 온라인 개학	4.9~	고 3, 중 3
				4.16~	고 1~2 중 1~2 초 4~6
				4.20~	초 1~3
				완화된 수준 (4.20~5.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0.5.6. 개편)	1단계 (5.6~8.15)		순차적 등교개학	1차 (5.20~)	고 3
				2차 (5.27~)	초 1~2
				3차 (6.3~)	고 1, 중 2, 초 3~4
				4차 (6.8~)	중 1, 초 5~6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2020.11.7. 개편)	2단계 (8.16~10.11)		여름방학		
			전면 원격수업 실시 (8.26~9.18)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2020.11.7. 개편)	1단계 (11.7~11.18) 1.5단계 (11.19~11.23) 2단계 (11.24~12.7) 2.5단계 (12.8~)	2학기	- 밀집도 기준 근거 등교개학과 원격수업 병행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역별 탄력 운영		
			전면 원격수업 실시 (서울 12.7~ , 경기 및 인천 12.15~)		

주. 출처: 이재림, 김영선, 최정아 (2020).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음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양육 및 자녀교육 체험(lived experiences)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에서 떠오르는 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부모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돌봄 관련하여 무

엇을 경험했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교육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모집하였

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학부모교육참여패널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533명에게 모집공고를 배포하였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 첫째 자녀의 성별,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는 총 15명이었다.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만 34세부터 53세 사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42세였다. 4년제 대학 졸업이 14명이었고, 1명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가 9명, 경기도 및

표 2. 연구참여자 특성

(N = 15)

번호	참가자 (가명)	연령 (만)	거주지 (지역)	경제활동 상태	자녀 성별 (연령)	첫째 자녀 초등학교 유형
1	이순희	42	경기	전업주부	여(11세), 남(11세)(쌍둥이)	국·공립
2	김연화	53	서울	가끔 일함	남(11세)	국·공립
3	차미자	45	서울	전업주부	남(11세), 여(7세), 여(7세)	국·공립
4	노지원	48	서울	가끔 일함	여(11세), 여(7세)	국·공립
5	윤은지	40	서울	전일제	남(11세), 여(6세)	국·공립
6	강성경	42	경기	전일제	여(11세), 여(11세)(쌍둥이)	국·공립
7	조순영	41	서울	전일제	남(11세)	국·공립
8	정희경	42	서울	전업주부	남(11세), 여(10세), 남(7세)	국·공립
9	송창숙	39	경기	전일제	여(11세), 남(9세)	국·공립
10	서은정	34	서울	전업주부	여(11세), 남(8세), 남(6세)	국·공립
11	오정현	38	인천	전업주부	여(11세), 남(7세)	국·공립
12	최송이	39	서울	가끔 일함	남(11세), 여(7세)	사립
13	안유리	47	경기	전업주부	여(11세)	국·공립
14	문서연	43	인천	가끔 일함	남(11세), 여(9세)	국·공립
15	박하은	38	서울	전업주부	남(11세), 여(7세)	사립

인천광역시가 6명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기혼자로 면접 당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가구구성은 2세대 가구(부모+자녀)가 13명, 3세대 가구(조부모+부모+자녀)가 2명이었다.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3명, 2명인 경우가 9명, 3명인 경우가 3명이었다.

면접 당시 전업모는 7명, 취업모는 8명이었다. 취업모 중 4명은 전일제로 일했고, 4명은 가끔 일하고 있었다. 전일제로 일하는 어머니의 직업은 언론직 1명, 금융직 1명, 안전관리 기술직 1명, 서비스직 1명이었으며, 가끔 일하는 어머니 중 2명은 주 1-2회 정도 남편의 사업을 돕고 있었고 개인과외(1명)와 인터넷카페 운영(1명)을 하고 있었다. 첫째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7명, 남아가 8명이었으며, 그 중 2명은 쌍둥이였다. 첫째 자녀의 학교는 국·공립초등학교 13명, 사립초등학교 2명이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대면 심층면접법으로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중 2단계(2020년 8월 16일-10월 11일)와 1단계(2020년 10월 12일-11월 6일) 시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되는 시기였다. 초등학교 등교기준은 2단계에 밀집도 2/3 수준, 1단계에 밀집도 3/2 수준에서 등교할 수 있는 시기였다. 연구참여자의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원격수업과 주 2회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은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전문조사업체의 면접 전용공간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연구진이 속한 대학교 IRB 승인(2008/003-015)을 받았다.

심층면접에 앞서 반구조화된 면접 가이드를 구성하였고, 면접내용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면접의 질문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자녀와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등이었다. 연구참여자유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대면으로 설명하고, 참여 여부와 녹음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20분이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꼼꼼하게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사시 연구참여자의 신원이나 추적 가능한 정보는 기호로 표기하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고 전사가 완료된 이후 녹음된 파일은 폐기하였다.

자료분석은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제분석법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르기보다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는 Braun과 Clarke(2006)가 정리한 6단계 주제분석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서 떠오르는 주제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자료분석 1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심층면접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각 사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초기 코딩을 실시하였고 연구진이 모여 전체 코딩 내용을 정리하고 확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정리된

초기 코딩 내용을 유사한 코드로 통합하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다시 검토하여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였고, 5단계에서는 연결되는 중심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어머니의 경험으로 도출된 범주는 ‘코로나19와 자녀돌봄’, ‘코로나19와 자녀교육’이었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와 대주제별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분석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범주와 주제를 명명하고 재명명하면서 연구결과를 해석해 나

갔다. 코딩과 범주화, 주제도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교화와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잘 반영하고 이해하며 분석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자료를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서 2개의 범주와 6개의 대주제가 떠올랐다. 범주, 대주제, 소주제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코로나19 시기 어머니의 초등학교 4학년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범주 및 주제

범주	대주제	소주제
코로나19와 자녀돌봄	24시간 가정돌봄	돌봄은 계속 어머니의 몫 일 중심 재택근무와 흔들리는 어머니의 일자리 길어진 가족시간 속 갈등과 유대
	일상의 재구성	새로운 일상으로의 진입 새로운 일상의 구조화 유튜브와 ‘레벨업’ 그리고 ‘확찐자’
	식사와 건강	집에서 ‘삼시 세끼’ 건강식 준비에 대한 부담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코로나19와 자녀교육	처음 하는 원격수업	IT 강국의 준비되지 않은 원격수업 학부모-교사 소통이 사라진 학교 처음 본 학교수업 속 내 아이
	원격수업의 성공과 실패	4학년이라 다행, 4학년이라 걱정 ‘엄마선생님’이 필요 자기주도성이 중요
	자녀교육의 새로운 방향	학교, 교사의 의미 발견 사교육과 사립학교에 대한 태도 변화 이제 ‘진짜 학습매니저’가 필요

1. 코로나19와 자녀돌봄

24시간 가정돌봄

돌봄은 계속 어머니의 몫.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기 전 초등학교 자녀는 하교 후 돌봄교실,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4학년에 진급한 후에도 주로 집에만 머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24시간 가정돌봄이 시작되었다. 가정돌봄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 자녀의 식사를 챙기고 일상생활과 학교공부를 돌봐주는 일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몫이었다.

물론 제가 안 해놓으면 (남편이)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아침 차려서 먹이는 김에 점심 도시락 같은 걸 싸놓고 나가고. 제가 정 못한 날은 햄버거를 시켜 준다던가 계란 후라이를 해 가지고 먹인 다던가. 뭐 그 정도는 (남편이) 도와줬어요. 그렇다고 아이들 학습을 봐준다거나 아이들 데리고 놀러 나간다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요. (송창숙)

코로나19로 학교와 학원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학년인 자녀는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있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과 코로나19가 전염성 질병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가 꺼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온전히 아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조부모님은)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계시거든요. 근데 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고... (중략) 그리고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오고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다보니까 더 왕래가 없어졌잖아요, 친인척하고의.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랬어요. (윤은지)

일 중심 재택근무와 흔들리는 어머니의 일 자리. 자녀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정부는 자녀를 돌보기 어렵게 된 부모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확대 지원하였다 (고용노동부, 2020). 또한 ‘재택근무 인정’을 간소화하는 등 근로자가 재택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중 본인이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1명(윤은지 씨), 배우자가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3명(차미자, 윤은지, 조순영 씨) 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택근무가 주 1회처럼 빈도가 매우 낮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돌보기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자녀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매번 한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만 했었는데, 근데 그 일주일에 하루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빠도 재택근무를

하면 그날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일을 해도 거의 제가 다 애를 봐야되는 상황이라서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조순영)

근데 (제가) 재택근무하면서도 정말 일과 가정과의 분리가 안 되니까 애들은 옆에서 자꾸 뭐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카톡은 계속 불이 나고. 마치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부서에서 연락이 오고. (윤은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이 지속되면서 부모들이 사용한 1차 전략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어머니의 자발적 후퇴였다. 파트타임이나 가족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돌봄을 위해 일자리를 그만두거나(오정현 씨) 가족기업에서 출근일이나 출근시간을 줄였다(노지원, 최송이 씨).

제가 오전에 한 10시부터 4시까지 파트, 그러니까 계약...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아이는 이제 혼자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혼자 있는 것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아침에 제가 먹을 걸 해놓고 가도 원래도 좀 작고 말랐거든요. 그러니까는 밥도 잘 거의 안 챙겨 먹고 저도 막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9월 말쯤에 그만둔 거거든요. (오정현)

길어진 가족시간 속 갈등과 유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부활동이 차단되었고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자녀는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부모는 직장과 사회생활로 바빠서 집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이라는 한 공간에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그 이전보다 길어졌다.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회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신랑이 7시 반이면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어쩔 땐 6시에도 들어오고... (박하은)

코로나19 시기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면서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부모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경우가 많아졌으며, 자녀와의 갈등은 일상부터 원격수업까지 전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자녀돌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약 발라라, 세수 양치했냐. 핸드폰 좀 그만해라. 숙제했니.” 이게 잔소리 개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도 스트레스받고 개도 스트레스받고. 악순환이에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버럭버럭하고. 큰 애

한테 막 “나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런 소리까지 하게 되고. (노지원)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의 특성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일도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집에 있었거든요. 저희 신랑이. (중략)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사실 그런 영향 때문에 학원을 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수업이 없으니까. (중략) 굉장히 집이 좀 무거웠던 거 같아요. (송창숙)

걸어진 가족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집 밖은 바이러스로 위험한 곳이지만, 집 안은 가족이 함께 머무르는 안전한 공간이기에 오히려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유대가 깊어진 경우도 있었다.

갈등은, 그 갈등의 횟수는 더 많았던 것 같고, (중략) 근데 그것도 지나면서, 어쨌든 서로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왜 그 갈등을 해결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런 경험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강성경)

어려움을 같이 겪은, 전우애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뭐가, 그런 끈끈한 게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내야 되고. (중략) 동네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

시간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하고 보내는 그 시간하고는 또 조금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서로 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더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정현)

일상의 재구성

새로운 일상으로의 진입. 2020년 3월 신학기 개학이 4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학원 등에도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초등학생인 자녀의 일상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녀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학교와 학원,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의 일상은 집이라는 장소에서 방학과 같은 분위기에서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지 몰라서 방학이다 생각하고 그냥 놀았어요. (중략) 정말 방학처럼 보낸 거죠. 3, 4월 달까지는. (서은정)

아무래도 학교 갈 때보다는. 조금 더 늦잠을 자고. 그때는 또 원격수업을 처음에는 안 했었잖아요. 늦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밥도 여유 있게 먹고, (중략) 학교 갈 때는 막 밥을 먹어야 되고 막 아침에 바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 과일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밥을 먹고, 좀 쉬다가. (이순희)

새로운 일상의 재구조화. 학교와 학원에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학생활과 같은 편안한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부분등교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다시 재구조화되었다. 4월 원격수업 시작, 5월 부분 등교수업 시작, 9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이 시작될 때마다 자녀의 수면시간, 식사시간, 학습시간 등이 조정되었다.

아이들이 이제 생활을 규칙적으로 좀 하면 규칙적으로 먹고 치우고 이게 되는데. 애네들도 이제 점점 흐트러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큰 애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막 12시까지도 자요. (중략) 일어나는 건 거의 10시, 11시쯤에 이제 밤에 너무 늦게 자니까요.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노지원)

Zoom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시간이 어쨌든 좀 길어지기도 했고, 9시부터 12시까지의 어쨌든 큰 애든 둘째 애든 다 Zoom을 해야 되니까. (중략) 지금은 어쨌든 12시까지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강성경)

지금 2학기 때는 (중략) 일주일을 어떻게 보면 4일을 등교하구요. 하루는 쉬고 있는데. 하루 등교하는 날에는 절반 친구만 만나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Zoom으로 수업교실에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Zoom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송이)

유투브와 ‘레벨업’ 그리고 ‘확전자’. 연구참여자들에게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자녀가 유투브나 모바일 게임 등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금지해왔던 유투브, 게임, 슬라임 등을 점차 허용하게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으며 이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다.

아이가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을 왜 해 엄마?” 이랬어요. 근데 (코로나19 시기에는) 이제 무료하잖아요. 집에서. 그렇다고 이제...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잖아요, 코로나... (중략) 다들 그 애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벨업’(주: 게임에 숙련되어 단계가 올라갔다는 의미)이 많이 됐다고 (웃음). (윤은지)

슬라임 같은 건 사실 꿇었었는데 아이도 집에 있으니까 뭔가 어떤 놀이가 필요하잖아요. 꿇었었는데 다시 슬라임을 사게 되고. (안유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몇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체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도보로 등하교를 하고 학원을 이용하였던 자녀가 코로나19 이후 집에만 머물게 되면서 활동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한 참여자는 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실시간 원격수업(Zoom) 화면에 나타난 자녀의 같은 반 친구들 역시 체중이 많이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고기 한 근을 먹어요, 혼자서. 라면도 두 개에다가 밥까지 말아 먹는데. 그런 아이가 식성은 그대론데 운동이 올스톱이 되어서 12킬로 쪼여요. (정희경)

진짜 ‘확찐자’가 되어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말 아이들이 살이 많이 찌서 왔더라고요. 그게 막 보이잖아요. (Zoom) 화면으로도 보이고 하니까. (박하은)

식사와 건강

집에서 ‘삼시 세끼’. 학교급식과 외식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식사준비를 전담하게 되었다. ‘돌밥’(주: 돌아서면 밥)이나 ‘셔틀러’(주: 밥 가져다주는 사람)와 같은 신조어(문설화 등, 202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식사준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심은 보통 학교에서 먹고 왔었는데, 하루에 세 끼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식비에 대한 부담도 들기도 하고. (중략) 제일 힘든 거는 역시 밥이고. 동네 엄마들도 하는 애기가, 애들 밥해주기 너무 힘들다. (강성경)

취업모인 연구참여자가 느끼는 자녀의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은 전업모인 연구참여자와

다른 측면이 있었다. 자녀가 등교하지 않고 자녀의 기상시간이 늦어지면서 취업모는 출근하기 전에 자녀의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모두 준비해두어야 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 자녀 혼자 점심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녀가 식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실은 아침을 못 주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침까지 챙겨 놓고 가는 거예요. 애가 깨워도 안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도시락을 식판에 그냥 완전히 다 싸놓고 가요. 그리고 이제 먹고 자기가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이나 핫도그 이런 거는 놔두는데... (조순영)

밥을 해놓고 가도 자기 혼자 있으니까 별로 입맛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안 먹고 저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차려주면 먹고. (오정현)

건강식 준비에 대한 부담. 코로나19 이후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 성장기의 자녀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중요했다. 학교급식을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집에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체중이 증가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나타난 경우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식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학교에 가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점심을 먹게 되고, 또 아이가 되게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유라든가 중간에 과일 같은 간식들은 제공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없는 부분. (박하은)

저는 체계적인 공부 위주보다는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나름대로 식단을 짰어요. (중략) 육류는 50% 줄이고 두부를 많이 한 50% 이상 넣어가지고 다져서 동그랑땡을 늘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한다던가 샐러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희경)

취업 중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아침메뉴와 점심메뉴를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녀가 원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주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점심을 먹을 거를 준비를 해두잖아요.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없는 시간 쪼개서 막 해놓는데, 아이가 그냥 간편하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컵밥이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자꾸 찾게 되고. (윤은지)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갑작스럽게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것은 초등학생

에게도 스트레스 상황이었다. 윤은지 씨의 자녀는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으며, 오정현 씨의 자녀는 1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가 생겨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코로나 초기 4월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이 다 무너지고 학교도 못하고 이제 뭐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약도 조금 먹기는 했어요. (오정현)

살이 찌면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살이 찌면서 아토피가 왔어요. (중략) 이게 다만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각 집안에서도 꼭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유리)

반면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가 있거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아 더 편안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학교 가는 스트레스도 덜하고... (중략) 처음에는 애가 어쨌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막 신학기에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게 좀 미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차미자)

저는 학교 1, 2, 3학년을 생각하면 차라리 집에서 이거(원격수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학교 가봤자 애들하고 붙어서 싸우고, 우리 아이는 그런 아픔들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차라리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 (김연화)

코로나19로 외부 신체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하여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발 줄넘기, 스카이콩콩 줄넘기 같은 경우 계속 건강을 위해. (중략) 식사 후에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줬어요. (정희경)

초기 1학기 때는 제가 그래도 “산책가자, 동네 한 바퀴 돌자.” 이렇게 운동을 조금 했는데, 이제 어디 운동시설도 보낼 수 없는 환경이고 하니까. (안유리)

2. 코로나19와 자녀교육

처음 하는 원격수업

IT 강국의 준비되지 않은 원격수업.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원격수업이

실시된다고 하였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IT 강국인 한국이라서 온라인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시작된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원격수업 시스템의 운영방식이나 콘텐츠 등에 대해 실망하였다고 하였다.

저는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아이들도 미숙하고 선생님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시겠지만. (윤은지)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지 않게 어쨌면 이렇게 IT 강국이 원격은 이렇게 바닥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해외 이태리에 친구가 있어요. (중략) 거기도 유럽 중에서도 제일 바닥인 나라에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1:1 구두시험을 그걸로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EBS만 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유리)

1학기에는 네 차례의 휴업명령으로 개학이 연기되었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초등학생들은 가정에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접속하여 학습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동영상 시청 중심의 1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외적으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3월 말 또는 4월부터 Zoom을 활용한 실시

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3월달, 그때만 해도 체계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EBS 아무거나, 그러니까 EBS 강의 녹음된 거 계속 봐라, 이런 식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 5월인가에 e-학습터라는 게 나왔어요. (안유리)

저희(사립초등학교)도 3월달에는 EBS 강의를 듣고, 실시간 강의를 듣고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한 달이 안 됐을 때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이걸 아니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Zoom수업으로 바로 전환을 한 건데. (최송이)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2학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시작되었다. 국공립초등학교 학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은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시작된 것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였다. Zoom 활용 수업이 시작되면서 자녀의 기상 시간과 학습 시간이 규칙적으로 변화한 점과 담임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Zoom을 통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업시간이 1-2시간으로 짧았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원래 (1학기) 온라인 수업 들을 때는 세수도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한숨)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 채로 수업을 들었다면. (Zoom 수업 이후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친구들도 보이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씩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정말 학교를 가는 것처럼? 나름 몸가짐을 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윤은지)

지금 Zoom을 하는데, 음... 수업이라기 보다는, 그냥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하고, 전달사항, 그런 거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한마디씩 해본다든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선생님하고 한 번 소통하는 그런 건데. 그냥, (중략)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얼굴 보는 거고. (이순희)

2020학년도 1학기 및 2학기는 모두 원격수업 위주로 교과과정이 운영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영상 계속 시청하는 방식의 원격수업이 초등학생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 미술과 같이 체험이 필요한 교과목이나 직접 만져보면서 익혀야 하는 수업 내용의 경우 가정에서 설명해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원격수업은 학교급이나 학생의 발달특성에 따라 수업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애들이 일단 길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듣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영상으로 막 30분짜리, 40분짜리를 보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 했어요 (오정현)

(아이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잘 물어보

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학습내용만 좀 기억하는데. 수생식물, 수중식물 이런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부들이라는 식물 있잖아요. “엄마 그 부들 만져봤어? 그거 부드러워? 푹신푹신태?” 뭐 이런 거를 물어봐가지고. “아니 엄마는 못 만져봤는데.” 그런 질문을... (노지원)

연구참여자들은 원격수업의 콘텐츠에도 불만을 표현하였다. 담임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 교육적 차원에서 개발된 자료가 아닌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등을 수업자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교사의 원격수업의 준비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1학기 때는 담임선생님이 올려주신 수업이 없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올려주신 동영상 강의자료 같았어요. (서은정)

내용이 좀 이상한 내용 같은 거, 그게 여러 개 많았어요.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올라온 유튜브인데, (중략) 유튜브는 한 개인이 올리거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략) 그리고 무슨 호국보훈의 날 같은 경우는 (어이없는 웃음) 정말 개인의 사상 같은 것만 올리고 그런 적도 있고. (이순화)

학부모-교사 소통이 사라진 학교. 원격으로

정규수업이 계속 진행되었지만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자녀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였다. 가정에서 지켜본 원격수업은 수업내용이나 자녀의 태도 면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였고,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이 컸다. 때문에 담임교사를 통해 원격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교사와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근데 (2020년) 1학기에는 거의 지금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담을 조금 자세하게 했었고, 올해는 할 수가 없더라구요. 얼굴도 모르고, 선생님이 애 얼굴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이순희)

학기 초에 전화 상담. (중략) 애들이 활동하는 걸 선생님이 지켜봐서 문제점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인사 말고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일단 다 인사만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신청은 했어요. 근데 역시나 상담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 힘드시죠”, 선생님도 “어머니 힘드시죠,” 이런 얘기하고. (안유리)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담임교사와의 소통을 희망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정한 방침대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담임교사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문서연 씨)도 있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020학년도에도 담임교사와의 소통이 원활한 편이었고 문의, 의견 개진, 의견 반영 속도 등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사립초등학교는 학부모총회나 참관수업도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진행되었다.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이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전화해주고 (그런 걸 원하거든요) 이런 선생님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보면. “애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질문하면 답변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걸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내린 방침까지만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나는 선생님이 거기까지 하셨으면 그걸로 그 선생님이 할 일은 충분히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문서연)

알리미로 제가 궁금한 거는 실시간으로 (사립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문자나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답변은 오거든요. 하고 시간 이후에는, 4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편하게 해주셔서 그때그때 뭐가 좀 수업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 말씀드리면 바로 조치해주시고. (중략)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송이)

처음 본 학교수업 속 내 아이. 자녀가 가

정에서 학교 정규수업에 원격으로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원격수업을 받는 모습을 통해 학교나 교실에서 자녀의 모습을 유추하기도 하였고, 새로 알게 된 자녀의 모습으로 인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채워주어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로 치료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차미자 씨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동안은 어떻게 발표라던가, 수업에 참여도라던가 잘 몰랐던 부분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파악하게 되었어요. (최송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이 수업에서는 애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중략) 영어수업을 하는 걸 보니까 (중략) ‘문법을 지금 알려줬으면 좋겠네’, ‘수학도 끝잘 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니까 시험 성적이 엉망이었네?’ (중략) 그래서 ‘수학을 좀 더 공부를 시켜줘야겠구나’ (박하은)

이 아이랑 저기가 안 되니까. 우선 (아이가) 내가 하라는 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사실 선생님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아, 너 학교에서도 이랬구나’ 싶은 거예요. (차미자)

원격수업의 성공과 실패

4학년이라 다행, 4학년이라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저학년의 비해 원격수업에 적응하는데 수월했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학교급으로의 전이기인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4학년이어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에 비해 4학년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수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원격수업을 잘 지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학교의 원격수업의 효과에 학년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격수업을 위해 도와줄 것이)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인이 잘 따라하고, 수업내용은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들 이제 (아이가) 한 번만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도와줄 필요는 좀 없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오정현)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3학년 과정이 심화되면서 교과목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학습 측면에서 중요한 4학년 시기에 원격수업 중심의 학교교육이 실시되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였다.

근데 4학년인데 5, 6학년을 대비해야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면 애는 1년을 공으로 날렸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안유리)

4학년 때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사회, 과학. 3학년 때에 비해서 4학년 때 사회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요. (노지원)

‘엄마선생님’이 필요. 코로나19 시기에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모는 자녀의 원격수업 전반을 지원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을 위하여 디지털기기를 준비하고, 수업이 제공되는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녀가 수업을 듣도록 준비시켰다.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제출 확인 등에도 어머니의 개입이 필요하였다. 학교에 교사가 있다면 가정에는 이른바 ‘엄마선생님’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애들이 갈수록 집중을 안 해요. (중략)
근데 보면은 이렇게 멍하니 딴생각 하고 있고, 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똑바로 안 봐?’ 뭐 이러거든요. (이순희)

반면 전일제로 취업 중인 어머니들은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원

격수업을 준비해주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출근한 이후에 자녀가 원격수업 접속이나 수업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처하기 어려웠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원격수업 내용과 연계된 과제를 도와주기 힘들었다.

“**야 온라인 클래스 들었어?” 그러면 “엄마, 오늘 접속이 제대로 안 돼서 못 들었어.” 이런 경우도 있었고. (중략)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저희처럼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이거 안 배웠어.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은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서 그냥 거기 쓰여 있는 이 과제만 보고서는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윤은지)

자기주도성이 중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원격수업을 지켜본 후 학습에 대한 자녀의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기주도성이 높은 자녀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동영상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수업의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원격수업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잘하고 그 뒤까지 완

벽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하자’ 그러면 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누구야. 왜 안 하니?’, ‘해라’, ‘보여줘라’ 하면 마지못해야 해서... 어쨌든 그 수업은 끝나죠. (최송이)

이거(원격수업) 자체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조금 차분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애는 워낙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서 막 들썩들썩 하는 애라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앉혀놓으면 어찌 됐든 간에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근데 (원격수업에서는) 뻔해요. 분명히 틀어놓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고 터닝메카드 만졌다가, 그러겠죠? (조순영)

자녀교육의 새로운 방향

학교와 교사의 의미 발견.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공교육 또는 학교,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컸으나 학교 문이 닫히면서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 따르면, 아동의 일상을 구조화하는 기능만으로도 학교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학교는 교사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래와 함께 어울리면서 관계를 배워나가는 곳이고, 친구를 통해 발달하는 배움의 장소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의미가 온라인으로 구현되기 어렵기에,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금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교육이 항상 부모의 니즈(needs)를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중략) 학교 공교육 정말 욕만 했었는데 ‘귀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계기가 1학기였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도대체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엇이고 뭐가 잘못됐나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학교는 그냥 이렇게 또래 집단이 모여서 관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그동안 했었던 거다. 그런 거 귀한 거다. (안유리)

그냥 학교라는 것 자체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습관도 그렇잖아요. (중략) 학교에서 뭘 하고, 뭘 체험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학교는 가는 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정현)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원격수업을 지켜본 후 ‘선생님’과의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객관적이고 교육자적인 마인드로 자녀를 이끌어 줄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도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인터랙트(interact)하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고. (문서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가 많기는 하

지만 그래도 진학, 학업을 계속 고등학교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이끌어주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참으면서 못 가르치거든요, 부모들은. (웃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끝까지 지도해 줄 수 있는 진득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심 없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 감정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로, 아이들을 애정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지원)

사교육과 사립학교에 대한 태도 변화. 학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한 2020학년도 1학기를 보낸 연구참여자들은 원격수업만으로는 학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학교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보충이 필요한 교과목은 학원 등의 사교육을 이용하였으나,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습효과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커졌다. 이에 새로운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원격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학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e-학습터만으로 안 되니까, 사실 저는 주(主)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가정학습지)가 되고 있어요. ○○○○ 이제 그 스마트 기계로 (송창숙)

계속 원격수업을 진행을 해서 1년, 2년 계속 더 해야된다면 습관을 좀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겠죠. 습관을 잡고 나면은 저는 아이도 공부하는 거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중략) 그러면 굳이 학교를 안 가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 (노지원)

초등학교 입학 앞둔 둘째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은 첫째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때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지원 씨의 첫째 자녀는 한글을 모두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둘째 자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자주 가지 못해서 한글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소위 ‘엄마표’ 한글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최송이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의 수업이 충실하게 느껴져 국공립초등학교에 보낼 생각이었던 둘째 자녀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큰 애는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다 배우고 (중략) 근데 작은 애는 어린이집을 잘 못 가니까. (중략) 한글이 지금 제일 걱정이예요, 사실 아직 못 떼서. (노지원)

둘째는 둘째이기도 하고 여자애고 1월 생이라 되게 야무져서 저는 애는 일반초등학교를 보낼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중략)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 수업하는 거나 학교가 대응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애도 그냥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의해. (최송이)

이제 ‘진짜 학습매니저’가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이전과 차별화된 부모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부모는 등하교와 학원 등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사교육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매니저 역할이 수행하였다면 이제 학습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별화된 부모역할은 원격수업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녀의 학습진도, 이해도, 과제제출 등 학습 전반에 깊게 관여하는 이른바 ‘학습매니저’ 부모를 의미하였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강해주는 역할, 자녀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습관을 조성해주는 역할 등도 포함되었다.

어쨌든 일주일에 원격수업이나 그런 걸로 학교에서 받는 수업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교과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공부에 대한 것도 부모의 책임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단순하게 뭐 ‘이거를 해라’라고 알려줄 수는 있고, 뭐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세요’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결국 이해 못 하는 부분은, 결국 다 설명을 해줘야 하고, 뭐 연습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집에서... (강성경)

‘진짜 매니저’가 되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학습, 애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그 전에도 엄마 역할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아이

의 학습 진행 뭐 학교 진도도 엄마가 다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이수했는지 그것도 다 파악하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순희)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코로나19 시기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어머니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15명을 연구참여자로 2020년 10월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주제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돌봄은 10대가 된 자녀를 24시간 돌보아야 하는 경험이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고 학원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에 대한 외출도 자제하게 되면서 신생아를 돌보는 시기처럼 어머니와 자녀가 24시간 함께 하는 돌봄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 돌봄의 수준은 다르지만 식사와 수면, 놀이나 여가시간을 직접 챙겨야 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성격도 달라지면서 돌봄의 부담이 커졌다. 코로나19로 가족 내 자녀돌봄 요구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모습

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부담은 어머니에게 집중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익중, 2020). 특히 일하는 어머니 중 전일제의 경우 낮 시간 자녀가 혼자 있는 동안 전화로 자녀의 안부를 챙긴 반면, 근무시간이 유연한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자녀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자녀돌봄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은 안도와 불안이 공존하는 경험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입시나 새로운 학교급으로의 전이 부담이 없고 자녀 혼자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은 저학년을 마무리하고 고학년으로 전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다.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낮 시간 동안 원격수업을 도와줄 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자녀의 학습도 달라졌다. 일하는 어머니들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녀 혼자 원격수업에 출석하여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격수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녀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자녀의 학습상황을 진단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으나 학교나 담임교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자녀의 특성도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경험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본 연구의 사례 중 주의력 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코로나19 시기 학습격차는 원격수업, 부분등교수업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변화보다 학습에 이미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진한 학생,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결과(김경애 등, 2020; Dorn, Hancock, Sarakatsannis, & Viruleg, 2020)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가족의 자녀돌봄과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학교와 학원을 통해 학습과 돌봄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취업모에게 코로나19는 돌봄뿐 아니라 학습에서도 공백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과 교육의 격차는 부모의 자원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선행연구(Brossard et al., 2020; Fegert et al., 202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족공유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관계에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공존하고 있었다. 가족공유시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일상적 돌봄과 학습까지 공유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갈등을 경험할 시간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 시기 가족 내 잠재적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을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시기 학교 원격수업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개발·제공되어야 하며, 초등학생의 원격수업에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아동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에 비해 자기주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박혜진, 강신천, 2006) 원격으로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앞으로도 전면 또는 부분 원격수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원격수업을 마련하거나 교사의 추가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초등학교 4학년의 어머니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돌봄과 교육 경험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다른 학년과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심층면접이 이루어진 2020년 10월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시기로 2021년 현재의 학교 수업방식이나 자녀양육 상황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으로 학사일정을 이어나가는 변화 속에서 자녀돌봄과 자녀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어머니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단계적 등교확대로 변경하였다(교육부, 2021).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전반적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와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원격교육 등이 공교육의 일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학교와 학부모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0. 4. 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준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71에서 2021년 8월 17일 인출
- 교육부. (2021. 8. 9). 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5257&d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8월 17일 인출
-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임은미 (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미 (2020). 코로나-19 속 한국의 일·가족 양립 현실, 위기로 끝낼 것인가, 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월간 공공정책, 174, 56-59.
- 김유식, 정병철 (2020). 코로나19 상황이 전업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6), 567-578.
- 문설화, 오은미, 유선영 (2021).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어머니의 변화된 양육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2(2), 162-174.
- <https://doi.org/10.12799/jkachn.2021.32.2.162>
- 박완성, 박종환, 임영미 (2021). 코로나 19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707-728.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707>
- 박혜진, 강신천 (2006). 학습양식에 따른 개별화 학습 지원 시스템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14(2), 101-122.
- 석민아, 문인경, 이병호 (2021).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의 가정보육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3), 199-230. <https://doi.org/10.20437/KOAECE26-3-08>
- 신의진 (2011).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초등 고학년 편. 서울: 걷는나무.
- 이보람, 이강이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인한 공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 지원현황.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63-78.
<https://doi.org/10.7466/JFBL.2021.39.2.63>
- 이재림, 김영선, 최정아 (2020).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의 경험: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 COVID-19로 경험한 학교와 교육공동체: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7), 77-94.
<https://doi.org/10.5762/KAIS.2021.22.7.77>
- 정익중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 조숙인 (2021). 코로나 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포럼*, 68, 18-28.
- 최윤경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290, 50-63.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Brossard, M., Cardoso, M., Kame, A., Mishra, S., Mizunoya, S., & Reuge, N. (2020). Parental engagement in children's learning. *Innocenti Research Briefs*, 22 (Report No. 2020-09).
<https://doi.org/10.18356/e6a74487-en>
- Dorn, E., Hancock, B., Sarakatsannis, J., & Viruleg, E. (2020, June 1). COVID-19 and student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hurt could last a lifetime. Retrieved September 6, 2021, from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student-learning-in-the-united-states-the-hurt-could-last-a-lifetime>
- Fegert, J. M.,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 (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 1-11.
<https://doi.org/10.1186/s13034-020-00329-3>
- Ghosh, R., Dubey, M. J., Chatterjee, S., & Dubey, S. (2020).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Special focus on psychosocial aspect. *Minerva Pediatrica*, 72(3), 226-235.
<https://doi.org/10.23736/S0026-4946.20.05887-9>
- Patrick, S. W., Henkhaus, L. E., Zickafoose, J. S., Lovell, K., Halvorson, A., Loch, S., ... & Davis, M. M. (2020). Well-being of parents an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Pediatrics*, 146(4), e2020016824.
<https://doi.org/10.1542/peds.2020-016824>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https://doi.org/10.1037/amp0000660>

- Wang, G., Zhang, Y., Zhao, J., Zhang, J., & Jiang, F. (2020). Mitigate the effects of home confinement o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Lancet*, 395(10228), 945-947.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520-1](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520-1)
- Xiang, M., Zhang, Z., & Kuwahara, K. (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children and adolescents' lifestyle behavior larger than expected.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 63(4), 531-532. <https://doi.org/10.1016/j.pcad.2020.04.013>

1 차원고접수 : 2021. 07. 24.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8.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Mothering and Educational Involvement During COVID-19: South Korean Mothers' Lived Experiences with Their 4th Graders

Kim, Youngsun

Lee, Jaerim

Choi, Jung-Ah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dammindcarecenter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lived experiences of South Korean mothers who cared for their 4th graders and wer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October 2020,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mothers whose first child was in 4th grade. Our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two overarching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hild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ed three themes: (a) 24-hour home care, (b) the reconstruction of everyday routines, and (c) preparing three meals a day and caring for children's health. The second category,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d three themes: (a) unprepared for virtual schooling in a country with a strong IT infrastructure, (b) a key to success and failure in virtual schooling, and (c) a new roles of parents during the pandemic and a reconstructed meaning of schooling.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challenges that the mothers experienced and the insights that the mothers gained as they cared for their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eywords: COVID-19 pandemic, mothering, virtual schooling, parental involve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